

## 2024년 제41회 관세사 1차 시험 출제경향 분석

### 제1과목 관세법개론

2024년 관세법개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출제되어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제영역별 문제 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영역별로 1~2문제 가량의 증감이 있으나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6문제가 출제되었던 FTA 관세특례법에서 올해도 6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운송/통관' 파트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록 난이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법 규정의 출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운송/통관' 파트를 눈여겨보아야 하고, FTA 관세특례법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 제2과목 무역영어

제2과목인 무역영어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문제의 대부분(약 88%)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기초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국제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협약과 관련된 문항들은 앞선 연도들의 시험과 유사하게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면서 규정 내 용어의 변경(부정어의 사용, 조동사의 변경, 주어의 변경 등)을 통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영문 문장 내의 변경된 내용을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러한 출제경향을 인지하고 무역영어 시험에서 원하는 수준의 점수를 취득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역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방대한 범위의 국제협약을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Incoterms 2020, UCP 600, CISG, Hague Rules, ICC, MIA와 같이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협약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뉴욕협약, CMI 통일규칙과 같은 기타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 및 용어를 숙지하는 것 위주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3과목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75%(30문제), 개별소비세법 15%(6문제), 주세법 10%(4문제)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제된 문제들이 대부분 법 규정에 대해 일부 수정(부정어의 사용, 기간의 변경, 예외/제외 사항을 반대되는 문구로 표현 등)을 가하여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문제(3문제)의 경우도 제시된 숫자 등으로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출제 범위가 넓지 않고, 사례형 문제가 최근 출제되지 않으므로, 매년 주로 출제되는 규정(과세대상, 과세시기, 기준가격, 미납세 반출 등)은 충분히 숙지하여 놓치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세법** -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제 범위가 넓지 않으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문제 형태에 적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 제 4과목 회계학

재무회계 75%(30문제), 원가관리회계 25%(10문제)로 작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계산문제가 70%(28문제)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기본적인 계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현금흐름표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연습을 통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유형과 파트를 파악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패스하거나 전체 문제를 푼 후 여유시간에 접근하는 방법의 수험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무회계** - 전체 30문제 중 계산문제가 63%(19문제), 이론문제가 37%(11문제)로 계산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주식기준보상 관련 이론 문제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의 '알아두기' 파트에서도 기출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 부분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문제에서는 현금흐름표 관련 문제들이 어려운 편이라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빈출 문제유형에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원가관리회계** - 계산문제 중심(90%)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계산문제의 난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73번 문제는 종합원가계산과 결합원가계산의 혼합문제라서 2가지 이론과 풀이법을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시간을 배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